

공통의 라이프스타일 바탕, 독자 공감 얻어

자본주의적 생활·문화·감각, 세계적 보편성 획득

글_ 한미화(출판칼럼니스트)



대부분 그렇듯 나 역시 하루키와 무라카미 류 이후 한동안 일본소설을 읽지 않았다. 그러다 시게마츠 기요시의 《비타민 F》를 접하고는 일본소설에 깊게 감정이입을 했다. 소설이 당시 나의 고민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고도 성장기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30대 후반의 남성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연작소설에서 주인공들은 아빠이자 남편이자 아들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과연 성공한 것인가 되묻는다. 이 소설을 통해 일본소설이 읽을 만하다는 느낌을 다시 받았다. 버블이 가라앉은 일본사회에서 중년의 정체성을 다룬 작품이 비슷한 상황의 우리에게도 공감을 줬던 것 같다.

이사다 이라의 《포틴》은 십대소설인데, 하이틴 소설이 갖는 유치함을 걷어 낸 웃고 우는 십대 이야기였다. 어른이 된 작가가 짐짓 십대인 척하는 게 아니라 십대의 몸으로 이야기했다. 재미로 말하자면 카네시로 카즈키의 《레벌루션 No.3》같은 청춘소설이 최고였다. 정말로 혁명을 꿈꾼 68세대 혹은 전공투 세대가 들으면 코웃음을 치겠지만, 공부도 못해, 돈도 없는 마이너리티들이 유전자 혁명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못난이 대작전을 펼치는 이야기다. 그러나 가네시로 가즈키나 요시다 슈이치의 청춘소설이 코믹만이 전부는 아니다. 5명의 젊은이들을 한사람씩 화자로 삼은 《퍼레이드》는 풀어가는 방식은 대중적이지만 인간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일본소설 붐을 일으킨 에쿠니 가오리의 실연소설이나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그네》처럼 강박이라는 심리적 주제를 풀어낸 연작소설도 독특한 느낌이었다.

집단보다 개인 천착 특징... '드라마는 한류, 소설만 일류' 시각 엄살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대충 훑어봐도 10대소설, 청춘소설, 연애소설 등 국내에 소개된 일본소설이 한국소설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음은 확연하다. 문학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순수문학 시장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지, 문학 '시장' 자체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독자들이 읽는 것이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했을 뿐이다. 물론 그것이 문학이냐고 묻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터이다. 영화보다 재미나게 소설을 읽는 것과, 독자가 문

학적 경험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이야기꾼의 목표가 재미라면 소설가의 목표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이 그랬듯 일본 내에서는 허구를 통해 리얼리즘에 도달하는 근대적 전통, 문학을 통해 도덕적·사회적 발언행위를 하는 일은 이미 붕괴되었다. 이점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에쿠니 가오리 등의 작품은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는 동떨어져 있다. 하루키의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건 하루키 작품의 성취도 때문이겠지만 하루키가 그런 일본인의 생활이나 문화 혹은 감각이 자본주의적이었고, 이를 반영한 소설이 보편성을 획득한 때문이다.

일본은 1960년에서 70년대에 중산계급이 형성되었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7,80년대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상해와 광둥 등은 8,90년에 소비를 주도하는 중간계급이 형성되었다. 사는 곳은 다를지라도 중산층은 공통된 라이프스타일을 지니며 물질적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보편적 소비 형태를 보인다. 이들을 타깃으로 일본의 만화,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홍콩의 영화 등이 인기를 얻는다.

역사적 공간보다는 현실에, 집단의 가치관보다는 개인에 천착하고 있는 일본소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독자가 우리 문화적 전통과 관계없는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을 모순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설의 주요한 독자인 2,30대 여성이 일본소설을 즐겨 읽다보니 출판사의 상업적 요구가 더해져 과열 번역 양상을 띠기도 한다.

드라마는 한류바람인데 소설만 일류의 공습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는 것처럼 일찌감치 자본주의적 보편성을 획득한 일본소설이 국내에 수용되는 것이다. 이제 아시아권은 만화나 게임, 음악 등의 문화영역에서 공통된 라이프스타일이나 감각을 토대로 공감을 주고받는다 생각해야지, '드라마는 한류인데 소설만 일류'라고 하는 건 엄살이다. ■